

# 현대차그룹, 미래 모빌리티 비전·전동화 기술력 공개

## ‘EV 트렌드 코리아 2025’

현대차그룹이 ‘EV 트렌드 코리아 2025’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공개한다.

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올해 8회차를 맞은 EV 트렌드 코리아는 전기차 민간보급 확대, 새로운 전기차 문화 형성 등을 위해 환경부 주최로 열리는 전기차 엑스포다. 3일부터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코엑스 A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 기아는 고객의 일상과 비즈니스에 혁신적 경험을 제공할 △PV5 패신저 △PV5 슈필라움 스튜디오 △EV4를 중심으로 다양한 맞춤형 모빌리티 경험을 선보인다.

행사에 전시하는 PV5 패신저는 기아의 PBV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탄생한 첫 번째 차량이다. 목적 맞춤형 차량 구조와 첨단 기술이 적용된 PV5는 모빌리티 서비스, 물류, 레저 활동 등 폭넓은 용도로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PV5 패신저는 전용 플랫폼을 통해 동급 최고 수준의 넓은 실내공간을 확보했다. PBV 전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고객이 원하는 용품을 직접 달 수 있는 기아 애드기어를 최초로 적용해 차별화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이를 활용해 택시 등 일반 여객 운송부터 고객 맞춤형 프리미엄 여객 운송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LG전자와 협력해 개발한 PV5 슈필라움 스튜디오는 PBV 맞춤형 공간 솔루션을 적용한 모바일 오피스용 컨셉트카다.

기아 PBV ‘PV5 패신저’ 전시 LG전자 협업 스튜디오 마련 등 현대차 넥쏘·아이오닉9 등 배치

LG전자의 스타일러, 스마트미러, 커피머신 등의 AI 가전이 탑재돼 최근 증가하는 프리랜서 및 원격 근무자들을 위한 최적의 이동식 업무 공간을 지원한다. ‘슈필라움(Spielraum)’은 독일어로 ‘놀이 공간’이라는 의미로 기아 PV5에 LG전자의 맞춤형 모듈 가전을 접목한 혁신적 모빌리티 공간 솔루션을 의미한다.

지난 3월 출시된 준중형 전동화 세단 ‘EV4’는 세련되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통해 차세대 전동화 세단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한 번 충전으로 533km를 주행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을 갖췄다.

기아는 이번 행사에서 세 가지 특색 있는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데일리 유어 EV’ 공간에서는 기아의 EV 기술력을 확인하고, 자신만의 EV를 구성해볼 수 있다. △Choose your EV 콘텐츠를 통해 원하는 EV와 내·외장 컬러를 자유롭게 선택해 맞춤형 EV를 제작할 수 있으며 △기아 커넥트스토어 콘텐츠를 통해 KBO 디스플레이 테마, 스트리밍 프리미엄, 아케이드 게임, 라이팅 패턴 등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기아는 전시관에 고객 상담 공간을 마련하고 EV4 시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승은 기아 전시관 현장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승 신청자 중



현대차 전시존은 참가자들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

현대차 제공

추첨을 통해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현대차 전시존은 참가자들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전기차 존에는 지난 2월 출시된 현대차의 첫 전동화 플래그십 SUV ‘아이오닉 9’를 전시하고 ‘EV행운충전소’가 배치됐다.

EV행운충전소에서 참가자들은 전기차 구매 고객을 위한 혜택인 ‘2025 EV 에브리케어’ 서비스를 ‘내 EV 라이프를 지키는 부작’ 콘셉트의 캐릭터와 굿즈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진단한 뒤, 그에 맞는 EV에

브리케어 서비스 매칭도 가능하다.

수소전기차존에는 2018년 이후 7년만에 선보이는 완전 변경 수소전기차 모델 ‘디 올 뉴 넥쏘’를 전시하고, 넥쏘의 주요 특징점에 대해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넥쏘에 탑재된 수소전기차 특화 정보 표시기능인 ‘루트 플래너’를 체험해 볼 수 있다. 루트 플래너는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 △수소 에너지 흐름도 △주행환경 맞춤 주행가늠거리 등 수소차의 주행 관련 정보를 제공해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또 ‘블루링크 스토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넥쏘 전용 디지털 사양인 △라이팅 패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스트리밍 플러스 △디스플레이 테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고객들은 이번 EV 트렌드 코리아 2025를 통해 현대차·기아 친환경차에 대한 신뢰감과 우수성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브랜드 전시관에서 고객들이 우수한 상품성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 관세 부담에도 기아 글로벌 판매량 1.7% ↑

### 총 판매량 26만 9148대

기아가 지난달 내수 부진·관세 부담에도 글로벌 판매량 증가세를 기록했다.

2일 기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아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비 1.7% 증가한 총 26만 9,148대를 판매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는 2.4% 감소한 4만 5,003대 판매에 그쳤지만 해외에서 2.6% 증가한 22만 3,817대를 판매했다.

국내에서 최고 인기 차량은 7,734대 팔린 쏘렌토다. 승용은 △레이 4,000대 △K5 3,028대 △K8 2,627대 등 총 판매량은 1만 2,664대다.

RV는 쏘렌토를 비롯해 △카니발 6,651대 △스포티지 5,295대 △셀토스 4,257대 △EV 3 1,866대 △타스만 1,348대 등 총 2만 9,596대가 판매했다.

해외 최대 판매 모델은 4만 2,796대를 기록한 스포티지다. △셀토스 2만 1,760대 △K3(K4 포함)가 1만 7,641대로 뒤를 이었다.

기아 관계자는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호조와 EV4·타스만의 성공적인 출시로 4개월 연속 전년비 판매 성장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라며 “앞으로 EV4·타스만 수출 본격화와 PV5, EV5 등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를 통해 판매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 RV 성원 보답 ‘스토리 위드 기아’ 이벤트

### 30일까지 사연·사진 공모전

기아는 주요 RV(레저용 차량) 라인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인스파이어링 스토리 위드 기아(Inspiring Story With Kia)’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기아와 함께한 추억’ 공모전 방식으로 시행되며 기아 차량 보유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아와 함께한 행복했던 일상을 사진과 함께 사연으로 응모하면 된다. 추천 방식으로 체험 프로그램 3개 중 희망하는 프

로그램 하나를 함께 선택해 오는 30일까지 기아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추첨 프로그램 중 첫 번째 ‘HMG 캠핑 익스피리언스’는 오는 9~10월 중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에서 진행된다. 총 참가 고객 20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각 팀은 최대 4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시 EV3, EV9 등 기아 전기차를 1박 2일 간 시승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캠핑 체험에 활용할 수 있는 캠핑장비 일체와 장비기 비용 10만원이 제공된다.

두 번째 ‘신차 시승’ 프로그램은 타스만, EV4 등 기아 신차를 7박 8일 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100명에게 선사한다.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8월 4일 까지며 시승 기간 유류비 10만원이 지원된다.

‘보유차량 케어’ 프로그램은 자동차 내·외장 관리 전문 브랜드 소낙스와의 협업을 통해 내/외부 스페셜 세차 및 전면 유리 유막 제거 서비스를 받아볼 소비자를 추첨을 통해 200명을 뽑는다.

이밖에 기아는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2025년 내 기아 세단 또는 RV 차종 재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로열티 재구매 할인 쿠폰 10만원을 준비했다. **홍승현 기자**

중흥그룹



더 특별하게 설계합니다  
더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클래스, 그 이상을 넘어

Beyond the CLASS  
**중흥S-클래스**